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지난달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성남FC와의 경기에 수문장으로 나선 윤평국. <광주FC 제공>

광주FC '서드 골키퍼' 윤평국의 '인생 선행쇼'

기약없는 기다림, 인내와 도전 끝에 절실함으로 가치 증명 동료들과 선의의 경쟁 '기회는 평등·결과는 희망' 감동 선사

“저는 광주의 세 번째 골키퍼였습니다.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절실하게 임한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돌아올 것입니다.”

광주FC 골키퍼 윤평국이 지난달 24일 K리그1 27라운드 성남FC와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윤평국은 이날 성남의 결정적인 슈팅을 여러 차례 막아내며 광주의 무실점 수리와 함께 팀의 3연승을 이끌었다.

윤평국은 2013년 K리그 신인드래프트에서 5순위로 인천에 입단했지만 두 시즌 동안 엔트리에 단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후 윤평국은 2015년 군 입대를 택했고, 그해 3월21일 상주 상무 소속으로 경기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실제로 경기에 출장하는 데까지는 또다시 213일이 더 걸렸고, 10월20일 안양전에서 마침내 K리그 무대에 데뷔했다.

윤평국은 전역 후 광주로 동지를 옮겼으나, 2017시즌에도 당시 전 골키퍼였던 윤보상의 백업으로 세 경기를 뛰는 데 그쳤다. 그러던 2018시즌 윤

보상이 군에 입대하며 윤평국은 여섯 시즌 만에 주전 자리를 꿰찼고, 24경기에 나와 26실점을 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듬해인 2019시즌에도 광주의 골문을 지켰고, 26경기 24실점으로 광주의 K리그2 우승에 이바지했다. 하지만 2020시즌 K리그1에 복귀한 광주는 윤평국과 이진형이 각각 14경기, 13경기에 출장하며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올 시즌에는 진정한 광주로 돌아온 윤보상이 주전 골키퍼로 낙점됐고, 윤평국은 다시 벤치를 지켜야만 했다.

언제 올지 모를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한 윤평국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다.

윤평국은 지난 25라운드 인천전부터 선발로 출장했고, 이후 세 경기에서 단 한 골만 허용하며 팀 3연승을 이끄는 등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골키퍼는 팀에서 유일한 포지션으로, 어렵게 프로에 입단하더라도 주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또다시 바늘구멍과 같은 경쟁을 거쳐야 한다.

2013시즌부터 2021시즌 28라운드 종료 현재까

지 K리그1 공식경기의 출전선수명단에 단 한번이라도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 선수의 수는 총 1천380명이다. 포지션별로는 FW가 135명, DF가 448명, MF가 402명, GK가 135명이었다.

또한 2013시즌부터 2021시즌 28라운드까지 K리그1에서 경기 중 교체 투입은 총 1만1천738번 있었다.

그런데 이 중 GK 교체는 46번에 불과했고, 특히 27라운드만 치러진 지난 2020시즌에는 GK 교체 투입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골키퍼에게 돌아오는 출장 기회 자체가 적고, 그 적은 기회마저도 소수의 주전급 선수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난다.

자신과 같은 상황의 동료들을 응원한 윤평국의 한마디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을 많은 K리그들에게 희망이 됐을 것이다.

그들의 절실함과 그들이 흘리는 땀을 응원하는 팬들의 모습은 스포츠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또 하나의 감동 포인트다.

김호영 광주FC 감독은 “광주FC에는 주전, 비주전이 없다. 선수들에게 항상 당장 경기에 나서지 못하더라도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한다”며 “윤평국은 항상 성실하게 훈련해 왔고 찾아온 기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선의의 경쟁은 팀에 활력소가 된다. 감독으로서 고맙고 힘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KBO리그, 오늘부터 확대엔트리 시행...추가 5명 등록



나지완 장지수 한승혁 <KIA 타이거즈 제공>

한승혁·장지수·나지완 KIA, 확대 엔트리 윤곽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확대 엔트리 명단이 나왔다.

맷 윌리엄스 KIA 감독은 31일 잠실 구장에서 두산 베어스와의 방망 경기기 우천 취소되기 전, 인터뷰에서 “한승혁, 장지수, 나지완을 확대 엔트리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KBO리그는 1일부터 확대 엔트리를 시행한다. 각 팀은 기존 1군 엔트리(28명)에 추가로 5명을 등록할 수 있다.

각 구단은 투타에 걸쳐 5명씩 보강해 순위 경쟁에서 요긴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KIA는 사정이 다르다.

KIA는 지난달 22일 퓨처스리그(2군) 선수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선수단 전체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이들은 1일부터 4일까지 단계별로 격리 해제가 되지만 그동안의 훈련 공백으로 인해 즉시 전력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행히 한승혁과 장지수, 나지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 확대 엔트리에 포함될 수 있었다.

5명을 모두 채우진 못했지만, KIA에는 귀중한 전력이다. 세 선수는 이미 팀에 합류해 1군 등록만을 앞두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내일부터 격리 해제된 인원들에 대해 누구를 추가로 등록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환뉴스>

조선대, 전국추계대학테니스연맹전 단체전 우승



조선대가 제75회 전국추계대학테니스연맹전 겸 제3회 회장배대회 남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조선대는 지난달 30일 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계명대를 3대2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조선대는 지난해 팀을 재창단한 후 1년 만에 남자 단체전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프리랜서 김도원 기자 제공>



마요르카 유니폼을 들고 웃고 있는 이강인. <마요르카 홈페이지 캡처>

마요르카에 새 등지른 이강인, 구보와 한술밥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와 10년 동행에 마침표를 찍은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20)의 새로운 등지가 RCD 마요르카(스페인)로 결정됐다.

마요르카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렌시아와 계약을 끝낸 이강인과 4년 계약을 했다”라며 “자유계약(F.A)으로 2025년까지 계약한 이강인을 즐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단 모든 구성원을 대신해 이강인이 따뜻한 환영을 받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마요르카에 새 등지를 틀은 이강인은 이번 시즌 임대로 팀에 합류한 일본 축구기대주 구보 다케후사(20)와 한술밥을 먹으면서 그라운드에서 ‘동갑내기 우정’을 펼치게 됐다. <연환뉴스>



지난달 30일 열린 2021 K리그 U18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광주FC U18 금호고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제공>

금호고, 2021 K리그 U18 챔피언십 준우승

현풍고에 승부차기 끝 7대8 석패...광양제철고 공동 3위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 U18 팀인 금호고가 ‘2021 K리그 U18 챔피언십’ 준우승을 차지했다.

금호고는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대구FC U18 현풍고와 연장 접전 끝 승부차기에서 7대8로 패했다.

2019년 대회 우승팀인 금호고는 현풍고를 상대로 두번째 우승에 도전했지만 아쉬운 패배로 준우승에 머물렀다.

올해 7회째를 맞은 ‘K리그 U18 챔피

언십’은 K리그 산하 고등부 클럽(U18)이 출전하는 대회로 올해에는 22개 팀이 참가해 경남 창원군에서 지난달 20-30일까지 11일간 진행됐다.

금호고는 6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조별 예선에서 1승1패를 기록, 조 2위로 16강 토너먼트에 올랐다.

16강에서는 강원FC U18 강릉제일고를, 8강에서 성남FC U18 풍생고를 각각 2대1로 물리친 뒤 준결승전에 나선 금호고는 강력한 우승 후보 전북현대 U18 전주영생고와 2대2로 비긴 뒤

승부차기 접전 끝에 5대4,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금호고는 결승에서 전남 U18 광양제철고를 2대1로 꺾은 현풍고를 상대로 강한 압박을 펼치며 경기를 압도했다. 후반 38분 위협적인 슈팅이 현풍고 골키퍼 한지율의 선방에 막히며 아쉬웠다.

전·후반 및 연장에서도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금호고는 승부차기에서 7대8로 패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준결승전에 진출한 전남 U18 광양제철고와 전북현대 U18 전주영생고는 공동 3위를 기록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도시공사 김지현 20여 여자선수권 ‘태극마크’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 레프트 백 김지현(21·사진)이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았다.

김지현은 대한핸드볼협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제18회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 여자대표팀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선발된 대표팀은 오는 15-25일 요르단에서 열리는 제18회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18명이다.

김지현은 2018년 10월 1라운드 2순위로 광주도시공사 유니폼을 입고 실업무대에 데뷔했다.

2년간 백업이던 그는 지난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주전으로 정규리그 21경기와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를 소화했다.

정규리그 100득점(12위) 57어시스트(9위)를 기록하며 광주도시공사의 역대 최다득(10승)과 창단 첫 포스트시즌 진출에 기여했고, 시즌 베스트7에 선정되기도 했다.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강화훈련 멤버로 뽑혀 친전선수촌에서 훈련을 했으나 최종 엔트리에 탈락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제18회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는 12개국이 참가해 2개조로 나뉘어 조별예선을 치른 뒤, 토너먼트를 진행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한국은 카자흐스탄, 홍콩, 싱가포르, 카타르,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A조에 속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제25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12월 1-19일·스페인) 참가국 수가 32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상위 6개 팀에게 세계대회 출전 티켓이 주어진다.

1987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열리는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여자핸드볼은 초대 챔피언과 함께 대회 8연패를 기록했으며 최근 제14회 대회부터 현재까지 4연패를 이어가는 등 총 14회 우승을 차지한 아시아 여자핸드볼의 최강자다. <박희중 기자>